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보도자료

- 목차 -

- I. 개요
- II. 시상
- III. 부산국제영화제 종합 결산
- IV. 영화제 사업별 결산
 - i.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 ii. 포럼 비프
 - iii. 커뮤니티비프
 - iv. 동네방네비프
- V.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I. 개요

1. 기본 개요

- 개최 기간: 부산국제영화제 2022년 10월 5일(수) ~ 14일(금)
- 상영관: 7개 극장 30개 스크린
 - 영화의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 롯데시네마 대영(커뮤니티비프),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커뮤니티비프)
- 상영작
 - 공식 초청작 71개국 242편
 - 월드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101편
 - 월드 프리미어 88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13편
 - 커뮤니티비프·동네방네비프 상영작 161편(중복 제외)

2. 총 관객 수

- 영화제: 161,145명(좌석 점유율 약 74%)
- 커뮤니티비프: 17,166명
- 동네방네비프: 11,002명

3. 프로그램 이벤트

- 오픈토크 11회
- 야외무대인사 9회
- 스페셜 토크 2회
- 액터스 하우스 4회
- 마스터 클래스 2회
- 아주담담 5회
- 핸드프린팅 1회
- 짧은 영화, 긴 수다 3회
- 시네마 투게더 16인의 멘토
- 게스트와의 만남(GV) 304회(오프라인 301회/온·오프라인 동시 3회)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4.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요약

- 마켓 배지: 총 49개국, 1,102개사, 2,465명(2021년 총 55개국, 853개사, 1,479명)
- 부스: 총 22개국, 272개사 72개 부스
- 아시아프로젝트마켓 미팅 횟수: 총 705건
- 부산스토리마켓 미팅 횟수: 총 1,027건
- 플랫폼부산 참가자: 총 25개국, 165명

5.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 총 참석인원 7,542명
 - 영화제 국내게스트 3,189명
 - 영화제 해외게스트 752명
 - 마켓 국내게스트 1,523명
 - 마켓 해외게스트 942명
 - 시네필 1,136명

※ 단순 참가(방문)자 및 프레스 제외



II.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1] <괴인> | 이정홍 | 대한민국

심사평: 심사위원단은 감독이 극중 인물들을 얼마나 민첩하고 정교하게 바라보는지를 특히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괴인>은 혁신적인 촬영 기법을 통해 한집에 있는 인물들 간의 독특한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며 아주 현대적인 세계관을 쌓아 올린 작품입니다. 이에 뉴 커런츠 상을 수여합니다.

[수상작 2] <그 여자, 쉬밤마> | 자이산카르 아리아르 | 인도

심사평: 현시대에 걸맞는 이야기를 완성시켜 준 감독의 독창성과 강렬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큐멘터리와 픽션이 만나 이토록 자연스럽고도 활력 넘치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매 장면마다 끈끈하게 어우러지는 배우들의 부드러운 연기가 빛납니다. 이에 뉴 커런츠 상을 수여합니다.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세르주 투비아나(프랑스/유니프랑스 회장)
- 심사위원: 알랭 기로디(프랑스/감독)
카밀라 안디니(인도네시아/감독)
카세 료(일본/배우)
이유진(대한민국/제작자)

2. 지식상

[수상작 1] <바람의 향기> | 하디 모하계흐 | 이란

심사평: 첫 번째 수상작은 이란의 하디 모하계흐 감독님의 <바람의 향기>입니다. 작품 구성 전반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힘, 그리고 매 장면마다 감명 깊게 두드러지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이유로 꼽습니다. 그리운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에게 바치는 헌사를 담았지만 동시에 본 작품의 주연까지 인상적으로 소화해 낸 감독의 고유한 목소리와 시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수상작 2] <변모> | 올킨 투이치에브 | 우즈베키스탄

심사평: 또 하나의 수상작은 우즈베키스탄의 올킨 투이치에브 감독의 <변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역사를 서구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소련의 문화와 배경을 바탕으로, 색다른 시각을 압도적인 영상미를 통해 선사하는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지석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장-미셸 프로동(프랑스/영화평론가)
오기가미 나오코(일본/감독)
김희정(대한민국/감독)

3. 비프메세나상

[수상작 1] <두 사람을 위한 식탁> | 김보람 | 대한민국

심사평: 비프메세나의 한국작품은 김보람 감독의 <두 사람을 위한 식탁>입니다. 작품 전반에 나타난 정서적인 힘, 깊고도 내밀한 내면, 모녀 사이의 복잡한 애정과 갈등의 시간들을 치밀하면서도 탁월하게 이미지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수상작 2] <축구광 자흐라> | 샤흐민 모르타헤자데, 팔리즈 쿠쉬델 | 이란

심사평: 비프메세나상의 아시아 작품은 샤흐민 모르타헤자데, 팔리즈쿠쉬델 감독의 <축구광 자흐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는 주인공을 통해 이란의 여성차별적인 현실과 역사를 강렬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유쾌한 형식과 잘 짜여진 구성으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잘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특별언급] <친애하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써보려 합니다> | 첸시이 | 미국, 중국

심사평: 어머니와 딸 사이의 투병과 돌봄에 대한 소재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안정적인 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왕빙(중국/감독)
오사마 모하메드(시리아/감독)
김일란(대한민국/감독)



4. 선재상

[수상작 1] <따스한 오후> | 란 티안 | 중국

심사평: 아시안단편경쟁의 대상은 란 티안 감독의 <따스한 오후>로 결정했습니다. 보통의 가족 이야기 안에 중국의 소수민족 이슈를 함께 녹여 흥미롭게 풀어낸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보편적인 드라마 안에 매우 예민한 사회적 이슈를 섬세하게 담아낸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들의 날것 같은 연기와 미장센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단편 장르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훌륭하게 완성해낸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수상작 2] <그리고 집> | 정은욱 | 대한민국

심사평: 한국단편경쟁의 대상은 정은욱 감독의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영화는 중요한 테마, 이른바 간병과 노인문제와 가족 내 젠더 이슈 등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진실성 있게 다뤄낸 놀라운 작품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갖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인물들을 매우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한편, 그들의 상황을 매우 영화적인 기법으로 표현하는 성취를 이뤄낸 이 작품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언급] <타인의 삶> | 노도현 | 대한민국

심사평: 한편, 특별언급으로 <타인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미니멀한 설정과 인물 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힘있게 밀어 붙이는, 단편영화만의 매력이 돋보이는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정제된 배우의 연기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면을 맛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선재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사에드 루스타이(이란/감독)

하야카와 치에(일본/감독)

윤가은(대한민국/감독)



5. 올해의 배우상

[올해의 배우상-남자] 김영성 | <빅슬립> | 대한민국

심사평: 이번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역시 영화제의 위상에 걸맞는 좋은 영화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심사한 올해의 배우상 배우들의 좋은 연기들을 보면서 저의 연기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고 우리 영화에 아직 숨겨진 보석 같은 배우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 모두의 축제로 더욱 빛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해의 배우상-여자] 김금순 | <울산의 별> | 대한민국

심사평: 울산 바다같이 넓고 깊고 푸른 연기를 보여준 그녀에게 희망찬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직도 이렇게 훌륭한 배우를 몰랐다니 나의 무지를 탓한다. 그녀는 충분히 젊고 새롭고 신선한 배우이자 올해 주목받아 마땅한 찬란한 배우이다.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이영애(대한민국/배우)

김상경(대한민국/배우)

6. KB 뉴 커런츠 관객상

[수상작] <그 겨울> | 아미르 바쉬르 | 인도, 프랑스, 카타르

7.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

[수상작] <라이스보이 슬립스> | 앤소니 심 | 캐나다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8.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수상작] <천야일야> | 구보타 나오 | 일본

심사평: <천야일야>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상실감과 새로운 삶의 재건 과정을 수려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바닷가 풍경을 활용하여 인물들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빛납니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에이야 니스카넨(핀란드/영화평론가)

왕신(대만/영화평론가)

안치용(대한민국/영화평론가)

9.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수상작] <괴인> | 이정홍 | 대한민국

심사평: 극중 목수일을 하는 주인공과 같이 이 영화는 단순한 방법으로 한 세대의 내면을 완성해 나가며 끝에는 경이롭고 예측불허한 존재론적 결과에 도달합니다. '자동차 위로 뛰어오른 건 누구였을까?' 와 같은 일상의 작은 미스터리들을 풀어나가듯이, 영화는 평이함 속의 모험을, 쉽사리 보기 힘든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헤르빈 탐스마(네덜란드/영화평론가)

첸겔 다바아삼부우(몽골/제작자)

김동현(대한민국/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10. 한국영화감독조합상-메가박스상

[수상작 1] <빅슬립> | 김태훈 | 대한민국

심사평: 거칠지만 온정이 있는 사내와 외로운 가출소년의 교감과 상생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펼쳐낸다. 묵직하고 섬세한 연기를 보여준 두 배우와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는 사려 깊은 연출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수상작 2] <울산의 별> | 정기혁 | 대한민국

심사평: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일해온 주인공과 그 가족이 처한 삶의 풍경을 조망한다.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의 초상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담아낸 연출이 인상깊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메가박스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정가영(대한민국/감독)

정병각(대한민국/감독)

정세교(대한민국/감독)

11. CGV상

[수상작] <비닐하우스> | 이슬희 | 대한민국

심사평: <비닐하우스>는 독창적인 스토리라인과 예측할 수 없이 반전되는 장르를 유려하게 잘 풀어낸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리얼리티를 살리는 배우들의 명연기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극에 긴장감을 더하며, 엔딩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슬희 감독의 다음 작품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비닐하우스>에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 CGV상을 수여합니다.

12. KBS독립영화상

[수상작] <괴인> | 이정홍 | 대한민국

심사평: 올해의 괴작. 무엇을 상상하든 그 예상을 배반하는 <괴인>은 올해 부산에서 선보인 모든 신진 감독의 영화를 통틀어 가장 전형성에서 비껴나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한다. 설명할 수 없는 우연과 기묘한 조우가 빚어내는 삶의 아이러니한 풍경들을 특유의 독특한 리듬감으로 담아낸 이 영화는 한국 독립영화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신진 감독의 탄생을 알리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KBS독립영화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윤성호(대한민국/감독)
장영엽(대한민국/영화기자)
김윤미(대한민국/제작자)

13. CGK촬영상

[수상작] <지옥만세> | 정그림 촬영감독 | 대한민국

심사평: <지옥만세>의 촬영은 독특한 아웃 오브 포커스를 통해 나미와 선우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임을 암시하지만, 영화의 엔딩에서는 결국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의지가 되어줄 것임을 표표히 표현하고 있다. 이 영화의 카메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영화적인 순간들을 만들어 내어 자연스럽게 관객을 두 사람의 여정에 동행시킨다.

CGK촬영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김형구(대한민국/촬영감독)
제창규(대한민국/촬영감독)
엄혜정(대한민국/촬영감독)

14. 크리틱b상

[수상작] <괴인> | 이정홍 | 대한민국

심사평: <괴인>은 지향점을 알 수 없는 느슨한 서사와 잉여감, 영화 전반의 능청스러움마저 정밀히 세공하여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작품입니다. 인물과 공간을 유연하게 넘나들으로써 그 정밀함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신비로운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모두 이에 공감하는바, 크리틱b 상을 수여합니다.

크리틱b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김나영(대한민국/영화평론가)
김민우(대한민국/영화평론가)
이상경(대한민국/영화평론가)



15. 왓차상

[수상작 1] <공작새> | 변성빈 | 대한민국

심사평: 배우 해준의 매력적인 연기와 배우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촬영, 프로덕션 디자인, 그리고 강렬한 음악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를 따뜻한 가족드라마로 풀어낸 점이 인상 깊음.

[수상작 2] <비닐하우스> | 이솔희 | 대한민국

심사평: 비극적인 삶에 갇혀버린 주인공 문정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작품으로, 노인과 아이, 여성 등 각각의 캐릭터가 개성 있고 주체적으로 묘사됨. 노부부와 요양보호사라는 평범한 소재를 사용해 숨 막히는 서스펜스를 만들어 낸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임.

16. 왓차단편상

[수상작] <타인의 삶> | 노도현 | 대한민국

심사평: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인물 간의 대화만으로 진행되지만, 뛰어난 연출력으로 서스펜스와 몰입도를 놓치지 않음.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의 말 몇 마디로 쉽게 깨져버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묘사가 돋보임.

17. 오로라미디어상

[수상작 1] <비닐하우스> | 이솔희 | 대한민국

심사평: 영화 <비닐하우스>는 주인공 '문정'을 통해 소외된 약자들을 둘러싼 참담한 관계들을 극적인 파국으로 몰아가며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한편의 밀도 있는 드라마로 몰입감 있게 만들어냄으로써 영화적 성취를 훌륭히 해내었다.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수상작 2] <빅슬립> | 김태훈 | 대한민국

심사평: 영화 <빅슬립>은 따뜻하고 단단한 영화다. 단백하고 능수능란한 연출과 '기영' 역을 맡은 김영성 배우의 연기는 치유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훌륭히 성취해낸다. 아이들의 렌턴이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다.

18.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Birth> | 유지영 | 대한민국

심사평: 이 작품은 여성의 임신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가부장 통념에 질문을 던집니다. 관객들은 약 2시간 반 동안 '함께 경험하기'를 통하여 생물학적 성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몸의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생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했기에 이 영화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19.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 비나이 슈클라 | 영국

심사평: 이 영화는 언론의 중립성과 우민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킨다. 기득권과 결탁한 언론이 혐오의 필터로 대중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언론과 대중의 태도에 들끓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20. 이춘연 영화인상

[이춘연 영화인상] 백재호 | 프로듀서 | 대한민국

이춘연 영화인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강제규(대한민국/감독)

심재명(대한민국/명필름 대표)

유지태(대한민국/배우)

정한석(대한민국/프로그래머)



Ⅲ. 부산국제영화제 종합 결산

1. 대면 행사로서의 성공적인 개최

3년 만에 정상적인 개최였으며, 개폐막식을 비롯하여 이벤트와 파티 등 모든 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해외 게스트도 정상적으로 초청하였다. 모든 행사와 이벤트 그리고 극장에 오랜기간만에 관객과 게스트들 간의 영화에 대한 담론이 넘쳐난 영화제였다.

2. 국내외 영화인들의 대거 참석

작년 69명에 그쳤던 해외 게스트 참석 인원은 세계적인 배우와 거장들을 포함하여 올해 1,694명으로 늘어났으며, 국내는 4,712명의 게스트가 영화제를 찾았다. 각국의 국제영화제 및 영화 관련 기관에서도 대거 참석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객들을 만났으며, 각종 네트워크 행사 및 리셉션 등에 참여하였다. 얼어붙었던 국내외 영화인들 간의 네트워크의 장이 3년 만에 활발하게 되살아났다.

3. 관객들로 가득 찼던 영화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 극장과 영화의전당 야외무대는 3년 만에 관객들로 가득 찼으며, GV와 오픈토크, 액터스 하우스, 아주담담, 포럼 비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와 포럼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시금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영화제로 거듭난 해가 되었다.

4. 2년 차 '온 스크린' 섹션, 안정적인 자리매김

지난해 3편에서 올해 9편으로 확대한 온 스크린 섹션은 작년에 이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해당 OTT의 홍보 부스들도 참석하여 그 효과가 배가되었다.



5.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더할 나위 없이 2022년처럼!

3년 만이자 올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면 행사로 개최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에는 49개국 2,465명이 참가하여 최근 정상 개최됐던 2019년과 비교해도 12% 증가하였다. 동시에 역대 최다 비즈니스미팅 등 모든 수치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산업관계자들이 아시아프로젝트마켓, 부산스토리마켓, 플랫폼부산, 마켓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산업 행사와 네트워킹 행사에 참가하고 벌써 내년을 약속할 만큼 모든 참가 기관 및 업체의 고른 만족을 이끌어냈다.

6. 부산스토리마켓의 성공적인 안착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부산스토리마켓에는 51편의 한국과 아시아의 원작 IP(Intellectual Property)들이 참가하였으며 총 1,027건의 미팅을 진행하여 다양한 원소스의 영상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기존의 자체 E-IP(Entertainment Intellectual Property) 마켓의 기능을 흡수통합하고 다양한 CP(Content Provider)들의 부스 참여를 통해 확장된 IP의 거래의 장이 된 부산스토리마켓은 기존 E-IP 마켓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의 미팅 건수를 기록하였다.

7. 완성형 커뮤니티비프의 실험은 계속된다

‘관객이 만드는 영화제’의 완성형을 보여준 올해 커뮤니티비프는 5년째에 접어든 ‘마스터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화려한 게스트들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해설하는 실시간 소통과 함께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의 뜨거운 열기가 화제를 모았다. 또한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특별한 심야상영 ‘취생몽사’, 전국 영화 단체 90명이 참여한 ‘어크로스 더 시네마’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부활했다. 또한 시민들이 감독, 배우가 되어 직접 영화를 촬영하거나, 최첨단 홀로그램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는 등의 비프광장 체험 프로그램이 각광 받았다. 지난해 시작된 ‘영화퀴즈대회’, ‘게임씨어터: 인터랙티브 시네마’ 등 실험적 시도가 그 완성도를 높인 데 이어 ‘인터아시아와 메타버스 구현 등이 커뮤니티비프의 경계를 넘은 확장성 실험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줬다.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8. 공연과 상영, 모두의 축제로 거듭나는 동네방네비프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어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은 동네방네비프는 총 17개 장소에서 8일간 무료로 진행되었다. 올해도 도시의 정체성, 역사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부산의 매력을 보여주는 장소를 새롭게 발굴하고, 공연과 상영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 분위기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부산 야간관광 브랜드 '별바다부산'과 함께하는 동네방네비프 프로그램에서는 부산지역 시그니처 식음료(F&B)도 즐길 수 있었다. 그야말로 영화가 도시의 일상이 되고, 도시의 랜드마크가 영화제 행사장이 되어, 영화와 도시의 가치를 함께 즐기는 장관이 펼쳐졌다.



IV. 영화제 사업별 결산

i .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1.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요약

- 기간: 9월 27일(화) ~ 10월 14일(금)
- 주요 참가자: 교수진 3명, 강사진 7명, 펠로우 20명
- 교수진
 - 연출 멘토: 탄 추이 무이(말레이시아)
 - 촬영 멘토: 엄혜정(대한민국)

2. 주요 프로그램

-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어느 지붕 아래> | DCP | 17min | Color
 - <이곳으로> | DCP | 12min | Color
- ② 클리닉 및 멘토링
 - 촬영(엄혜정 촬영감독)
 - 카메라 핸드온 트레이닝(엄혜정 촬영감독)
 - 촬영 장비 트레이닝(로 이 츠 프로젝트 스페셜리스트)
 - 편집(최민영 편집기사)
 - DIT/DI(조희대 테크니컬 슈퍼바이저)
 - 데이터매니저 장비 트레이닝(조희대 테크니컬 슈퍼바이저)
 - 사운드(한명환 사운드디자이너, 김용국 사운드디자이너&폴리아티스트)
 - 프로덕션 디자인(안지혜 미술감독)
 - 영화음악(한재권 영화음악감독)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③ 특강

- 촬영 특강(엄혜정 촬영감독)
- 편집 특강(최민영 편집기사)
- DI 특강(조희대 테크니컬 슈퍼바이저)
- 사운드 특강(한명환 사운드디자이너)
- 폴리 특강(김용국 사운드디자이너&폴리아티스트)
- 프로덕션 디자인 특강(안지혜 미술감독)
- 영화음악 특강(한재권 영화음악감독)

④ 교수진 작품시사

- 리티 판 감독 | <잃어버린 사진>(2013)
- 탄 추이 무이 감독 | <바바리안 인베이션>(2021)
- 엄혜정 촬영감독 | <해빙>(2017)

⑤ MPA-BAFA 영화 워크숍: Bridge to Hollywood

-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이하 MPA)와 함께 프로젝트 피칭 워크숍 'Bridge to Hollywood' 진행
- 특강 멘토: 벅 스미스

3. 장학 프로그램 수상 결과

① CHANEL X BAFA Promising Filmmaker 어워드

- 수상자: 수라즈 파우텔(네팔)
- 수상자: 빠리니 부스라스리(태국)

② ARRI 어워드

- 수상자: 아루시 추그(인도)
- 수상자: 에이프릴 데인 가르시아(필리핀)

③ MPA 어워드

- 수상자(1등): 진 세릴 타기아몬(필리핀)
- 수상자(2등): 얀-카일 니에바(필리핀)



ii. 포럼 비프

포럼 비프 2022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부산영상위원회와 공동으로 10월 6일(목)부터 11일(화)까지의 6일간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영화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큰 화두로 삼아, 올해의 포럼 비프는 포럼의 시각특수효과(VFX)를 중심으로 하는 뉴 미디어 테크놀로지, 21세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경향, 영화의 장르적, 이론적, 정책적 재구성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를 전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관객들이 호응하는 열띤 포럼의 장이 만들어졌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온 부산국제영화제의 오랜 전통이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27회를 맞아 더욱 심화된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할 만하다.

1. 포럼 비프 요약

- 기간: 10월 6일(목) ~ 11일(화)
- 장소: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 시사실
- 참가규모
 - 참가 및 세션: 4개 단체(부산국제영화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부산영상위원회), 11개 세션
 - 참가자 전체(*주요 7개 세션): 482명(패널 33명, 관객 449명)

2. 주요 주제 및 프로그램

- 가상의 제국, 영화가 되다
 - 가상의 제국에 들어선 한국영화
 - 디지털 영화 문화의 수집과 보존
 - 영화적 프레임의 확장
- 21세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시선
 - 21세기 다큐멘터리의 이해



**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5-14 October 2022**

-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 '영화(cinema)'의 재구성
 - 시리얼 드라마는 영화인가?
 - 이론적 이슈와 방법론
 - 법, 제도, 정책



iii. 커뮤니티비프

5주년을 맞이한 커뮤니티비프는 그동안 추구해 왔던 '관객이 만드는 영화제'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객프로그램과 '데이바이데이'를 통해 협업하려는 기관 단체가 증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마을영화만들기'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야심차게 규모를 늘려 부산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들과 주민들이 영화 만들기의 즐거움을 8편의 결과물과 4편의 기록물로 내놓았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부활, 큰 환영을 받았으며, 메타버스 이식이라는 신경향과 8mm필름을 디지털 복원하는 레거시 미디어 사업이 대조적 공존을 이뤘다. 또한 호주 시드니와 부산의 동시 상영 후 이원생중계 GV를 가졌던 '인터아시아' 행사로 글로벌한 확장을 위한 전초전을 가졌다.

1. 커뮤니티비프 요약

- 기간: 10월 6일(목) ~ 13일(목)
- 장소: 롯데시네마 대영,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남포동 비프광장 등

2. 주요 프로그램 및 내용

- 프로그램
 - 상영 작품 수: 146편
 - 영화 상영: 68회
 - 게스트와의 만남(GV): 66회
 - 게스트 수: 160명
 - 참가규모: 17,166명



○ 주요 내용

- 상영 프로그램: 리퀘스트 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Day X Day/청년기획전/마스터톡/블라인드영화제/커비컬렉션
- 이벤트: 전야제/8mm 필름에 담긴 부산의 기억/영화퀴즈대회/게임씨어터: 선택하는 영화관/마을영화만들기* 상영회
 - * 특히, 마을영화만들기 제작은 전년 대비 대거 확대되었고, 풍성한 결과를 낳았다.
- 커비로드: 시민영화촬영체험존/홀로그램 실감스팟 체험존/시네아트체험존/어크로스더 시네마/코리아스타트어포럼 <THE창업가: Busan Dynamics>/야외무대 공연 프로그램
- 인터아시아 프로젝트(해외 동시상영)
 - <한산: 용의 출현>, <6인의 등장인물>, <기적> 총 3편
 - 인터아시아 프로젝트는 지난 3년 동안 부산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어 국내외 관객이 대면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올해는 태국 방콕, 호주 시드니와 부산을 연결하여 각각 2편, 1편을 GV 이원생중계로 연결하여 양 도시의 관객들이 만났다.



iv. 동네방네비프

지난해 출발해 국내외 호평을 받았던 동네방네비프는 올해 부산의 매력적 장소성을 더욱 다채롭게 보여주며, '동방비스페셜'을 비롯,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영화가 어우러져 부산 전역을 들뜨게 만들었다. 총 17개 장소에서 21편의 영화를 45회 상영하는 동안 53개 팀이 상영 전 공연을 선보였고, 8일 동안 총 11,000여 명의 부산 시민과 관광객이 '우리 동네'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었다.

1. 동네방네비프 요약

- 기간: 10월 6일(목) ~ 13일(목), 8일간
- 장소: 부산시 전역 16개 구군 17개소
 - 강서구 강서체육공원/금정구 범어사/기장군 일광해수욕장/남구 용호별빛공원/동구 북항친수공원, 차이나타운/동래구 동래읍성광장/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북구 백양근린공원/사상구 사상인디스테이션/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서구 송도오션파크/수영구 밀락더마켓/연제구 온천천시민공원/영도구 엑스스포츠광장/중구 유라리광장/해운대구 해운대이벤트광장

2.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상영 작품 수: 21편
 - 영화 상영: 45회
 - 게스트와의 만남(GV): 45회
 - 상영 전 GV 게스트 수: 26명(모더레이터 및 중복 제외)
 - 공연이벤트: 53회(동네방네아티스트 13회, 동방비스페셜 9회, 월간객석 3회,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28회)
- 참가규모: 11,002명



V.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3년 만이자 올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면 행사로 개최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에는 49개국 2,465명이 참가하였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12% 증가하였고, 동시에 역대 최다 참가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면 비즈니스에 대한 업계의 꾸준한 수요와 함께 K-Story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또한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22개국 272개 기관 및 업체는 자국 및 자사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홍보하였고, 특히 부산스토리마켓에서는 51편의 한국과 아시아의 원작 IP가 총 1,027건의 역대 최다 미팅을 진행하여 영상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아시아프로젝트마켓에 선정된 14개국 29편의 장편영화 프로젝트는 705건의 미팅을 진행하였고, 전년보다 5개 증가한 12개 어워드를 통해 1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20여 개의 마켓 콘퍼런스와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플랫폼부산을 통해 국가별, 산업별로 특화된 정보 전달과 네트워킹이 가능하였고, 아시아콘텐츠어워즈·롤링청년영화제·말레이시아 mylab워크샵과 국가 및 업체별로 개최된 수많은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1.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요약

- 마켓 배지: 총 49개국, 1,102개사, 2,465명
(2019년 총 56개국, 983개사, 2,188명 / 2019년 대비 업체 수와 참가자 수 12% 증가)
- 세일즈부스: 총 22개국, 272개사 72개
(2019년 총 34개국 200개사 86개 부스 / 2019년 대비 업체 수 36% 증가)
 - 한국의 '페스티벌존' 최초 운영, 한국의 5개 국제영화제 참가
 - 영국, 몽골 국가관 신규 참가 및 유럽관 최다 39개 세일즈사 온.오프라인 참가
- 온라인 스크리닝
 - 마켓 스크리닝: 총 16개국, 52개사, 177편(마켓 프리미어 71편)
 - 영화제 공식 선정작: 총 121편



2. 아시아프로젝트마켓

-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선정작 14개국 29편 선정
 - 3년 만에 재개한 아시아영화펀드, 플랫폼부산과 함께 체계적인 영화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완성
- 132개사, 170명 참가(역대 최다 게스트 참가)
- 비즈니스미팅 705건으로 2021년 대비, 미팅 수 37% 증가
- APM 어워드 12개 부문, 13편 수상(2021년 대비, 어워드 5개 추가된 역대 최다 어워드)
- 제25회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어워드 수상 결과

부문	수상 프로젝트 감독명 프로듀서명	제작국가
부산상	재벌의 탄생 마웅 순 마 아영, 마웅 순	미얀마
CJENM 어워드	꼬마유령 요셉 양기 논 율리아 에비나 바라, 크리스티안 임마누엘	인도네시아
TAICCA 상	시마의 노래 로야 사다트 알바 소토라, 프랑크 후베, 마에바 사비니앵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VIPO 상	형제의 나라에서 라하 아미르파즐리 아드리앙 바후이에	프랑스, 이란, 네덜란드
롯데어워드	동경의 날 김세인 장지원	대한민국
KB 어워드	우리는 서로에게 임정은 박두희	대한민국
뉴트리라이트 어워드	인민의 폭력(가제) 모리 타츠야 고바야시 산시로	일본
노르웨이사우스 필름펀드상	투명한 도르나즈 하지하 이자벨 글라상	이란, 홍콩(중국)
팝업필름 레지던시상	에리니스 정원희 윤재호	대한민국
ARRI 어워드	오늘 밤, 고요한 바다 레 바오 라이웨이지에	싱가포르
	나의 햇살 오쿠야마 히로시 니시가야 도시카즈	일본



부문	수상 프로젝트 감독명 프로듀서명	제작국가
콩짜스튜디오상	첫번째 빛의 마지막 그림자 니콜 미도리 우드포드 제레미 추아	싱가포르, 일본, 슬로베니아
모네프상	루프 아웃 김덕중 정현정	대한민국

3. 부산스토리마켓

- 비즈니스미팅: 총 1,027건
(2021년 E-IP마켓 대비, 미팅 수 25% 증가, 역대기록 경신)
- 3개국 28개 기관 및 업체 부스 참가
 - 대만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IP 신규 참가 및 피칭 개최
 - 서울국제도서전(출판사 14개 포함), 네이버웹툰, 올댓스토리, 작가컴퍼니 등 신규 부스 참가
 - 유관 국내외 기관 참가 증대, 대만콘텐츠진흥원, 일본영상진흥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4. 아시아영화펀드

- 아시아영화펀드 3개 펀드(장편독립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장편독립극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 장편독립다큐멘터리 AND펀드) 총 13편 지원
 - 후반작업지원펀드 신규 협력 파트너 참여와 부산 기업의 AND 펀드 제작비 신규 협찬
- 부산국제영화제 월드프리미어 상영(후반작업지원펀드 3편)
- 장편독립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지원작 <형제의 나라에서>, 2022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어워드 VIPO상 수상



5. 플랫폼부산

- 25개국 165명 참가
- 13개 네트워킹 및 필름메이커스토크, 패널토크 등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독립영화인들간의 교류와 연계 강화를 위한 장으로 자리매김
- 말레이시아 mylab워크샵 신규 개최

6.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콘퍼런스

- 20개 콘퍼런스 개최(피칭 7개, 플랫폼부산 5개, 기술 2개, 포럼/세미나 6개)
 - AI 보이스 기술업체, 수퍼톤의 기술세미나와 K-Story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 BSM포럼에 대한 관심 증대
- 중국 롤링청년영화제 및 시상식 신규 개최(3개 부문, 3개국 7개 단편 수상)
 - 제1회 롤링청년영화제 수상 결과

부문	수상작	감독명	제작국가
심사위원 대상	오토바이와 햄버거	최민영	대한민국
	리리	여정	중국
최우수 감독상	삼림지왕	러셀 애덤 모턴	싱가포르
	(OO)	오세로	대한민국
인기 감독상 - 금상	혜자	한경지	중국
인기 감독상 - 은상	배우들은 모두 춤을 춘다	청팀기안	말레이시아
인기 감독상 - 동상	종말의 주행자	조현민	대한민국



7.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최초 개최, 2,000여 명의 관객 동원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베스트 콘텐츠, 배우상(여) 2관왕을 비롯하여 제4회 아시아콘텐츠어워즈 13개 부문, 17개 작품 및 개인 수상
- 제4회 아시아콘텐츠어워즈 수상 결과

부문	수상자/수상작
베스트 콘텐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베스트 아시아 애니메이션	지구 밖 소년소녀
베스트 아시아 다큐멘터리	아툼아라울로 특별전: 어린 일꾼들
기술상	오징어 게임
배우상-여	박은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배우상-남	스즈키 료헤이, <달리는 응급실>
작가상	왕시야오웨이, 양이수, <팔각정미무>
조연상-여	소라 마, <디스 랜드 이즈 마인>
조연상-남	박해수, <오징어 게임>
신인상-여	바오상은, <화조추월야>
신인상-남	요코하마 류세이, <신문기자>
평생공로상	가와무라 타츠오
공로상	송병준
인기상	판빙빙
베스트 크리에이터	더핑크퐁컴퍼니
라이징스타	김민하, <파친코>
	링만룽, <인 각 위 트러스트>